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모형 개발

이 선 영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다문화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선발된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교생들 중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에서 예술적 잠재성을 보이는 예술영재를 판별하는 모형 개발에 관한 것이다. 연구에서 개발한 SMC모형은 예술적 기술, 동기, 창의성을 주요 판별 요소로 포함하며 문서 리뷰 및 교사 추천, 예술 영재성 평가, 종합 평가의 세 단계를 통해서 총체적, 영역 일반적 예술 영재성과 세부적, 영역 특수적 예술 영재성을 평가함으로써 아동의 예술적 잠재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판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효과적인 판별은 숨어있는 다수의 잠재적 예술영재들의 발견을 통해서 예술영재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들의 영재성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후속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주제어: 예술 영재성,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예술영재 판별

I.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개요

영재교육은 교육적 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엘리트주의적 수월성 교육관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랑과 반감을 동시에 받아왔다(Davis & Rimm, 1998). 영역별 영재성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관심은 국가, 사회적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학, 과학영재 육성에 주력하는 데 반해 예술영재를 비롯한 비수학, 비과학 영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태진미, 2009).

예술영재가 영재교육의 비주류 대상이 된 것은 예술 영재성 계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초반 미국 교육부는 영재를 일반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적

교신저자: 이선영(seonylee@yonsei.ac.kr)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지원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특수 아동으로 이들의 잠재성이 일반적 인지 능력, 특별한 학문적 적성, 창의적 사고력, 시각 및 행위 예술, 리더십, 신체운동 능력 등으로 발현된다고 정의하였다(Marland, 1972).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영재성 영역에 대한 변화(예: 신체운동 영역 제외)가 있었지만 예술은 현재까지 영재성의 한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역은 수학, 과학, 언어와 같은 학문 영역들과는 달리 공교육 체계에서 등한시되어 교육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예술 영재성 계발은 학교 교육이 아닌 부모나 가정의 지원으로 가능한 소수 부유계층 자녀들만을 위한 특별한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어왔다(이현주 외, 2010).

예술영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들도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는데 일반 영재들처럼 뛰어난 잠재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불리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발되는 경우가 현저히 낮았다(Stambaugh, 2007; Swanson, 2006; Wyner, Bridgeland & DiIulio, 2007). 가정의 소득 수준(Rogers, 2006; Valencia & Suzuki, 2001)과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Valencia & Suzuki, 2001; Wyner et al., 2007)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이 학업성취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재판별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특히 저소득층 아동이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 교사의 편견을 들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Ford, Harris, Tyson, & Trotman, 2002; Frasier & Passow, 1994; VanTassel-Baska et al., 2004)은 흑인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이들의 학습 및 성취동기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미국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저소득층, 소수 인종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Ford et al., 2002; VanTassel-Baska, Patton, & Prillaman, 1991),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85% 내외)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중상층 가정 자녀들로 다수가 전문직 부모를 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Matthews, & Olszewski-Kubilius, 2008).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성 판별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의 예술적 잠재성을 다방면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판별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선발을 위한 국내외 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리뷰를 바탕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사회, 문화적 실정에 맞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 모형을 음악, 시각예술, 발레의 세 가지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판별 모형에 포함된 검사 도구들은 국내외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별한 표준화 검사들로 현재 수행 능력보다 계발 가능한 예술적, 창의적 잠재성을 판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효과적인 판별은 잠재적 예술영재들의 발견을 통해서 예술영재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예술영재성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예술 영재성

영재성은 사회적, 시대적 기준에 따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영역과 특성들을 포함한다(Kaufman & Sternberg, 2008).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 5조에 의하면, 아동의 영재성은 일반 지능, 특정 학문적성, 창의적 사고,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외의 특별한 재능 등으로 발현된다. 영재성의 한 영역으로 예술이 포함됨으로써 예술교육은 더 이상 학교 밖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수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 속에서 관심과 지원을 받는 교육의 한 분야가 되었다.

이미경(2007)은 예술 영재성을 기술, 감각, 이해력, 표현력, 창의성, 동기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은 영재성 개발에 특히 중요한데 예술적 관심과 동기를 공유, 자극하는 친구와 동료(Bloom, 1985; Oreck et al., 2000; Zimmerman, 1997), 예술적 기교와 표현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대표적인 예이다(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Worley II, 2008).

예술 영재성은 영역 불분명성과 총체성의 특징을 가진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2011). 예술영재들은 자신이 재능을 보이는 특정 예술 영역에서만 뿐만 아니라 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필요한 예술적 기술, 동기, 창의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 개 이상의 예술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술영재들에게서 보이는 구체적인 특성들로는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방면으로 예술 활동을 즐기며, 예술적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Winner & Martino, 1993); 예술적 규칙과 체계를 내면화시키는 데 뛰어나며(Harrison, 2005);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세부 사항들에 관심이 많고, 창의적이라는 점이다(Arts Connection, 1992; Haroutounian, 2008; Hurwitz, 1983). 이처럼 다양한 예술 영역들을 총망라한 보편적, 총체적 특성들 외에도 예술 영재성은 하위 영역별로 요구되는 세부 특성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서양)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과 관련된 음악, 미술, 무용 영재성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음악 영재성

음악 영재성은 연주, 듣기, 기술, 표현, 열정, 집중력, 동기 등을 포함하며(Arts Connection, 1992; Haroutounian, 2008) 크게 음악적 능력과 태도로 구분된다(이미경, 2009). 음악적 능력은 음악적 감각, 이해력, 표현력, 세부 기술, 무대 연주력 등으로 구성되며 태도는 음악에 대한 열정, 집중력, 지구력, 자기 확신과 자신감 등과 관련이 있다.

음악은 일반적으로 성악, 기악, 작곡(지휘 포함)의 세 영역들로 구분되는데(Persson, 2009) 각각의 영역들은 예술 총체적 특성들과 영역 고유의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다. 가령, 성악은 음질, 음성 활동(기술); 정서적 민감성, 표현력(정의적 특성); 청력, 기억력(인지적 특성)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기악은 손놀림과 같은 동작(기술); 상상력, 표현력(정의적 특성); 청력, 기억력(인지적 특성) 등을 요구한다. 작곡이나 지휘도 창의성, 상상력, 표현력

(정의적 특성); 청력, 소리를 내면화시키는 능력(인지적 특성) 등이 필수적이다.

Sousa(2003)에 의하면, 음악 영재성 요인들 중 청력, 기억력, 창의성, 해석력, 리듬, 동조(악기 다룰 때 양손 사용 능력), 운지 기억력의 일곱 가지 기능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이현주 외, 2010). 음악 영재성의 유전적 성향은 뇌 활성화의 차이로도 설명되는데 절대 음감을 가진 음악가, 음악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높은 수준의 좌측 측두엽 혹은 전반적인 뇌 활성화(Ohnishi et al., 2001; Sousa, 2003)정도가 그것의 예이다. 반면 스키 교습법으로 알려진 재능교육(Talent Education)에서는 음악 영재성을 유아기부터의 연습과 훈련에서 비롯된 학습의 결과로 보고 있다(Suzuki, 1983).

음악 영재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들로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고, 노래하듯 웅얼이름을 하며, 장난감으로 리듬과 소리를 만들어내고, 노래 만들거나 악기 연주하기를 좋아하며, 소리 구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정확한 음정과 음감, 탁월한 청음, 기억력, 집중력, 음의 높이와 시각적 부호를 연결시키는 능력, 음악을 감정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좋아하는 것 등도 음악 영재들이 보이는 공통적 특징들이다(이미경, 2009; 이현주 외, 2010; Piirto, 2008; Winner, 1996a).

나. 미술 영재성

미술 영재성은 인지, 지각, 표현, 창의성, 태도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이미경, 2009). 인지, 지각 능력은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시각, 지각, 작품 분석력을 포함하고, 표현력은 형태, 색채,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다. 대개의 경우, 미술 창의성은 일반적인 창의성을 가리키는데 창의성의 주요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과 같은 하위 능력들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미술에 대한 관심, 흥미, 과제 집착력, 인내심 등을 포함한다.

미술은 회화, 조각, 건축, 디자인, 미디어아트의 영역들을 포함하지만(이미경, 2007) 일반적으로 미술 영재성은 시각예술 영재성을 가리킨다. 시각예술 영재성은 창의성, 시공간 조속성, 지각 능력으로 발현되는데(Gardner, 1983; Piirto, 2008; Winner, 1996a, 2004) 예전에 보았던 사물의 색, 모양, 구조,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거나 미완성 그림을 보고 완전한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 2차원 공간에서 3차원 사물의 윤곽, 입체, 형태를 상상하고 그리는 능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각예술 영재들이 전문가들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로 학자들은 (Hurwitz, 1983; Winner, 1996a, 2004)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 외에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게 선을 표현해내고, 위치에 상관없이 비율에 맞춰 사실적으로 그리며, 미세한 부분도 세밀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시각예술 영재들은 아이디어가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며(이현주 외, 2010; Reis & Housand, 2008), 어릴 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기법을 쉽고 빠르게 배우며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탁월하다(Hurwitz, 1983). Hurwitz는 시각예술 영재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시각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각예술 영재들은 왼손잡이이거나 양손잡이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뇌가 시공간적 활동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이며, 언어 장애, 특히 철자법이나 독해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nner, 1996b).

다. 무용 영재성

무용은 신체 동작으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예술(이미경, 2009)로 신체적 조건, 예술적 감수성, 정의적 특성, 인지 능력(무용지능)을 필요로 한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특히, 신체가 주된 표현수단이기 때문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신체 조건에는 체격, 체력, 협응력이 포함되며 이들 중 협응력은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무용 영재성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도 복잡한 동작을 구현하고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조정력과 민첩성도 무용 영재성을 구성하는 주요 신체운동 능력이다. 예술적 감수성은 동작을 통해서 사람과 대상,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키는 신체운동지능과 개인내지능(Piirto, 2008)과 연관이 있고, 감정 표현, 박자, 리듬감, 즉흥적 동작 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이현주 외, 2010; 한국영재예술교육연구원, 2006; Baum et al., 1996). 무용 영재성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들로는 무용에 대한 관심, 열정, 의지, 몰입, 인내심, 자신감 등의 동기 변인들과 양성성, 완벽주의, 비판적 성향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 능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동작과 기술에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데 필요한 정서 분석력과 이해력을 가리킨다. 인지 능력에는 심미적 해석, 직관력, 시공간 지각력, 동작에 대한 통찰력, 기억력, 관찰력 등이 포함된다(Piirto, 2008).

일반적으로 무용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김말복, 2003) 발레의 경우, 고도의 기술과 예술성을 동작에 담아 표현해내는 예술로 다른 영역들보다 신체적, 물리적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발레 영재성은 8~9세 때 나타나 10대에 정점에 이르고 20~30대에 쇠퇴하는 것처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대 이후에 영재성이 계발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irto, 2008).

3.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교육과 복지에서 별도의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일컫는다. 주요 고등교육기관이나 교육청의 사회적 배려대상 선발 전형에 명시된 정의에 의하면,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 직업 군인, 국내외 벽/오지 근무 경력이 있는 선교사나 교역자, 의료 봉사자, 환경미화원, 다문화 가정, 5.18민주유공자 자녀(2011년 연세대학교 입학처 기준 참고); 장애인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녀, 복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한 부모 가정 자녀(예: 부산광역시 서부지원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등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된다.

영재교육의 경우, 2005년 12월 영재교육진흥법 2차 개정안 5조에서 저소득층 가정 자

녀나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아동을 별도로 선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사이트 참조). 주요 대도시(예: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영재 교육 프로그램 선발 지침에 의하면, 가정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1호 참조),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 참조), 차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가정¹⁾,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들을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들 중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6%, 0.016%(한국교육개발원, 2009)로 매우 낮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령 아동 수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²⁾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가정의 연평균 소득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의 판별

가.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 판별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정원의 일정 비율에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포함하거나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기관(교육청, 대학부설, 기업 및 연구소 산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 25개 정도가 사회, 경제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만을 위한 영재학급을 별도로 편성해 놓거나 특별전형 방식으로 정원의 10~20% 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선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영재교육 기관들이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정의를 참고하는 데 반해 다수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의하고 지원,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 25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 중 여섯 개 대학이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 요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명시하여 학교장이나 해당 교과목 전담교사의 추천을 받아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청 산하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특별 영재학급을 이수하거나 수료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처럼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최종 선발 정원 중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으로 생활보호대상 아동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1) 다문화가정이란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결혼 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지칭한다.
 2) 2006년 7,998명, 2007년 13,445명, 2008년 18,778명, 2009년 24,745명, 2010년 30,040명으로 집계됨(교육과학기술부, 2010).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체나 연구소 산하 영재교육 기관들 중 LG사랑의 다문화 학교 과학인재교육과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산하 글로벌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과학인재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부모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부모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수학, 과학, 문화·기술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통한 일반 공개 전형방식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영재교육원의 경우, 특별전형 방식으로 대전광역시 거주 중학생들 중 교사,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지도 교사나 전문가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외 계층, 다문화 가정, 국가 유공자 자녀들을 선발하여 중학교 수학, 과학, 문화·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나. 미국 사례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 판별은 별도의 교육·장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Jack Kent Cooke(JKC) 재단이 후원하는 중등학교 연령의 저소득층 학습영재를 선발하는 Young Scholars Program(YSP)과 저소득층 예술영재 대학원생들을 위한 Graduate Arts Award(GAA) 프로그램이 있다.

YSP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학문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중학생 저소득층 영재들을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5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 지원하고 있다. YSP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연평균 가계 소득은 \$27,000로 90% 이상이 연평균 가계 소득 \$60,000미만 가정의 자녀들이다. YSP는 가정의 연평균 소득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생활비, 특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대학 재학 중인 가족과 부양가족 수, 학습장애 자녀 양육비 등 가정 내 특수한 경제적 상황들을 별도로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교사, 영재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 상담 및 기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리뷰를 통해서 YSP학생으로 선발되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진학 이후까지 다양한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JKC재단의 또 다른 장학 프로그램인 GAA는 미술과 공연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저소득층 대학원생 10여명을 선발하여 후원하는 예술영재 프로그램이다. YSP와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가정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적 상황 외에도 학생의 예술적 창의성, 학업 성취도, 성취 동기, 예술 활동에의 참여 정도가 고려되며 일단 GAA학생으로 선발되면 3년간 등록비, 생활비, 기타 여비를 포함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GAA지원자는 JKC재단이 대학별로 선임한 교육 자문가들의 추천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미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최근 졸업생이어야 한다.

III.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모형 개발

1. 판별 대상 및 영역

예술 영재성이 유아기나 아동기처럼 어린 나이에 발견, 개발되는 경우가 많음(Bloom, 1985; 이현주 외, 2010)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판별 대상으로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로 (1)가정의 연평균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가정 자녀와 (2)다문화 가정 자녀 여부를 고려하였다. 다문화가정의 다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 기준이 본 연구의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 대한 주요 선발 요건이었다. 아동의 예술 영재성 판별영역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예술 영역들 중 예술적 잠재성이 조속하게 나타나고 발현되는 (서양)음악, 시각예술, 발레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이현주 외, 2010 참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판별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음악, 시각예술, 발레의 한 가지 영역에서 잠재적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들이다.

2. SMC판별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모형은 (1)문서 리뷰 및 교사 추천, (2)예술 영재성 평가, (3)종합 평가의 세 단계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첫 번째 문서 리뷰 및 교사 추천 단계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와 아동의 예술 영재성을 교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두 번째 예술 영재성 평가 단계에서는 영역 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동의 총체적, 영역 일반적(domain general) 예술 영재성과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에 대한 세부적, 영역 특수적(domain specific) 예술 영재성을 기술, 동기, 창의성 요소들로 평가하게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모든 평가 자료들을 영역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종합적, 총체적으로 리뷰, 검토하게 한 후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 별로 다섯 명씩 총 15명의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를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재성은 영역 별로 요구되는 기술(skills), 동기(motivation), 창의성(creativity)의 세 가지 요소들로 평가하는데(Oreck, Owen, & Baum, 2003) 기술은 예술적 적성과 능력, 동기는 관심, 열정, 의지와 태도, 창의성은 창의적 성격, 태도 및 행동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판별모형은 예술 영재성의 구성 요소인 기술(S), 동기(M), 창의성(C)의 영문 첫 자를 포함하여 SMC모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가. 1단계 - 문서 리뷰 및 교사 추천

문서 리뷰 및 교사 추천은 아동의 사회적 배려대상 조건과 예술 영재성 수준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관련 문서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 보호를 받는 가정의 자녀는 건강보험공단 서류를 통해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자녀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 수당을 받는 가정의 자녀는 장애수당증명서, 차차상위계층 자녀는 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 추천은 아동의 예술적 잠재성을 교사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지, 판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이현주 외, 2010; 태진미, 2009) 판별 초기 단계에 수행하도록 하는데 영재행동특성평정척도(Renzulli et al., 2002), HOPE평정척도(Miller & Gentry, 2010), 설문지의 세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첫째, Renzulli 외(2002)가 개발한 영재행동특성평정척도(Scales for Rat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Revised: SRBCSS-R)는 교사가 아동의 영재성을 학습, 동기, 창의성, 리더십, 예술, 음악, 연극(연기), 의사소통의 정확성, 표현력, 계획성의 10가지 영역에서 6점(6=항상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척도로 평정하며 영역별로 동일 연령(학년) 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SMC모형에서는 SRBCSS-R의 영역들 중 창의성, 동기, 음악, 미술, 연극(연기)의 다섯 가지 영역 48문항으로 아동의 영재성을 초기 진단한다. 창의성과 동기 문항들은 아동의 총체적, 영역 일반적 예술 영재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며 음악, 미술, 연극(연기) 문항들은 세부적, 영역 특수적 예술 영재성 평가에 사용한다. 문항의 예로는 “오랜 시간동안 한 주제에 집중한다,”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해낸다(동기)”; “상상력이 풍부하다,” “다양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한다(창의성)”; “음정, 세기, 음색, 리듬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한다,” “소리구별 능력이 있다(음악)”;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관찰력이 예리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예술)”; “감정표현을 위해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남의 말, 걸음, 몸짓 흉내를 잘한다(연극)” 등이 있다.

둘째, HOPE평정척도(Miller & Gentry, 2010)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소수인종 영재판별을 위해 개발된 교사 추천·지명 척도이다. 교사는 아동의 학문적, 정의적, 사회적 특성들을 6점 척도(6=항상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하고 영재성 영역(예: 예술, 수학, 읽기, 글쓰기, 사회과학, 과학, 외국어)을 진단한다. 문항에는 “탁월한 성취를 보일 잠재성이 있다,” “호기심이 많다,” “자신의 강·약점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다” 등이 있다.

셋째, 교사 설문지는 아동의 예술적 잠재성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전문적인 소견과 SRBCSS-R과 HOPE를 통해서 인지, 평정하지 못한 아동의 영재적 특성들을 기술하도록 고안되었다. 교사는 10개의 선택형, 개방형 문항들로 아동의 예술적 기술, 적성, 능력, 태도, 창의성, 강·약점, 특이 사항, 또래 집단과의 비교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나. 2단계 - 예술 영재성 평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 두 번째 단계는 예술 영재성 평가 단계로 총체적, 영역

일반적 특성들과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에 대한 세부적, 영역 특수적 특성들을 영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SMC모형의 구성 요소인 기술, 동기, 창의성과 관련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1) 총체적, 영역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예술 영재성

가) 기술(S)

총체적, 영역 일반적 예술 영재성 기술 평가는 MI적성진로진단검사(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 2003), Naglieri Nonverbal Ability Test(NNAT: Naglieri, 1997), Gifted Rating Scale(GRS: Pfeiffer & Jarosewich, 2003)의 세 가지 표준화 검사로 수행한다. 첫째, MI적성진로진단검사는 Gardner(1983)의 다중지능론을 근거로 개발된 검사지로 지능 영역들에 대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측정한다. 다중지능에 포함된 여덟 가지 지능들(문용린, 2004) 중 예술 영재성과 관련된 음악지능(음악), 공간지능(시각예술, 발레), 신체운동지능(발레) 문항들을 사용하여 아동의 총체적 예술적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들은 음, 박자, 악기, 악보, 작곡, 곡의 장르와 내용에 대한 인식력(음악지능); 도형, 그림, 지도, 입체물을 구상, 창조하고, 공간 관계와 특성들을 표현하고, 입체감 있게 구성하는 능력(공간지능); 힘, 리듬, 속도와 같은 운동 요소 인식력과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동작표현 능력들(신체운동지능)을 평가한다. 초등학교생용은 저학년(1~3학년, 80문항)과 고학년용(4~6학년, 93문항)으로 나뉘며 문항은 언어와 그림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NNAT(Naglieri, 1997)는 논리, 추리,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인지능력 검사로 공간지각 능력과 관련된 예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학년에 따라 일곱 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며 문항은 38개의 도형들로 구성되었고, 패턴인식, 유추에 의한 추론, 순차적 추론, 공간시각화 능력 등을 평가한다.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의 아동들에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표준화점수(NNAT비언어능력지표, stanine 점수)로 동년배 학생들과 비교가능한 점이 NNAT의 장점이다.

셋째, GRS(Pfeiffer & Jarosewich, 2003)는 교사가 아동의 인지 능력, 학문적 적성, 창의성, 예술재능, 리더십, 동기의 여섯 가지 영재행동 영역들을 각각 12개의 문항, 9점 척도(1~3점: 평균이하, 4~6점 평균; 7~9점: 평균이상)로 평정하는 교사 평정척도로 본 연구 모형에서는 예술 영재성과 관련된 예술재능 문항들만을 사용하여 T점수를 산출한다. SRBCSS-R과 유사한 영재성 평정척도이지만 GRS의 예술재능 문항들은 전자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예술적 적성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문항으로 “고난도 예술적 테크닉을 사용한다,” “색채, 모양, 음, 움직임 등의 세부 사항들에 민감하다,” “작품이나 공연에서 미세한 차이와 특징들을 간파한다,”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등이 있다.

나) 동기(M)

아동의 예술적 동기는 GRS(Pfeiffer & Jarosewich, 2003)의 동기 문항들과 두 개의 설문지로 평가한다. GRS 동기 영역은 예술 활동, 재능 계발에 대한 관심, 열정, 의지, 끈기, 자신감, 도전 의식 등을 평가하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열정적으로 도전한다,” “포

기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는다,” “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능력보다 높은 과제에 도전한다” 등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동기와 같은 개인내적 특성은 아동 자신이 가장 적합한 평정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응답하게 함으로써 교사와 아동 간 인식의 차이를 참고하여 판별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동기 평가에 사용되는 첫 번째 설문지는 아동의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취미, 참여, 수상경력, 과제해결, 가상 상황에서의 반응 등을 측정하는 과학영재성 판별 문항들(Subotnik et al., 2010)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아동으로 하여금 좋아하고 참여하고 있는 예술 활동들을 나열하게 하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게 함으로써 예술적 소양과 열의, 태도를 평가한다. 두 번째 설문지는 아동의 교내의 예술 활동 유형, 참여빈도를 조사하고 예술재능 계발을 위한 노력, 열의, 집중력, 끈기, 도전감을 평가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의 특별 활동, 일주일간 가장 많이 시청한 TV프로그램, 교외 취미 활동 및 참여도, 방과 후 학원, 연주가능 악기 및 처음 배운 시기 등이 문항에 포함된다.

다) 창의성(C)

일반적인 예술 창의성은 Torrance 그림창의성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 Torrance, Ball, & Safter, 1998)와 GRS(Pfeiffer & Jarosewich, 2003)의 창의성 문항들로 평가한다. TTCT가 도형과 그림 문항들로 창의성지수를 산출하는 데 반해 GRS는 9점 척도 문항들로 아동의 창의성을 “보통이하”, “보통”, “보통이상”의 세 가지 수준으로 범주화시킨다.

TTCT 창의성지수는 표준화 점수와 보너스 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유연성, 독창성, 정교화, 제목 추상성, 미완성적 단합에 대한 저항(이상 표준화 점수)과 감정표현, 이야기, 동작, 비전형적인 방식으로의 시각화, 유머감각, 공상을 비롯한 13가지 창의적 특성들(이상 보너스 점수)을 평가한다. TTCT는 A형과 B형의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세 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은 한 가지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검사에 응할 수 있다. 언어, 독해력 수준과 상관없이 반응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편파적이지 않아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게 적합하며 동일 연(학)령 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예언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이 TTCT의 장점이다(Cramond et al., 2008).

GRS(Pfeiffer & Jarosewich, 2003)의 창의성 문항들(12개)로 아동의 예술 창의성을 평가한다. 동기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이들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문항의 예로는 “단답형이 아닌 개방형 질문에 다양하게 응답한다”, “과학자나 탐험가처럼 문제에 접근한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독창적으로 사고, 행동한다”, “독창적이면서 타당하게 생각들을 연계시킨다”, “새롭고 기발한 상황극, 이야기, 시, 노래들을 만들어낸다”, “농담을 잘하고 유희와 순발력이 뛰어나다” 등이 있다.

2) 세부적, 영역 특수적 개념으로서의 예술 영재성

가) 음악 영재성 - 기술(S)

음악 기술은 음악적 감각, 이해, 표현, 테크닉, 무대에서의 연주 능력들로 구성된다.

음악적 감각은 음의 고저, 음질, 음색, 리듬감, 속도, 화성감, 선율, 기억력, 가창력; 이해력과 표현력은 선율, 곡 구성 및 이해, 음악적 표현, 상상력, 개성; 테크닉은 연주 자세와 신체 조건(예: 터치, 페달 및 활 사용, 손가락) 등을 포함한다(이미경, 2007, 2009).

음악 기술에 대한 평가는 아동이 직접 평정하는 음악적성검사와 전문가 평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아동이 평정하는 음악적성검사로써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음악적성 표준화 검사도구인 한국음악적성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 KMAT, 현경실, 2004)를 사용한다. KMAT는 리듬과 가락의 두 영역에서 30문항씩 6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서양)음악과 국악 문항들이 2:1의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 아동은 음악을 듣고 리듬과 가락이 유사한지 여부를 답안지에 표시해야 한다.

기술평가의 두 번째 방법으로 시연(오디션)이 있다. 아동의 음악적 수행(예: 노래, 악기 연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예: 교수, 교사, 음악가,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관찰, 평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감, 음에 대한 민감성, 리듬감, 화성감, 기억력 등을 노래와 악기 연주, 리듬에 맞춰 박수치기, 어울리지 않는 화성 찾기 등으로 평가한다(이미경, 2009). 또 다른 방법으로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Adjudication Form(Haroutounian, 2002)과 같은 구조화된 평정지를 사용하여 음정, 리듬의 정확성, 소리의 풍부함, 연주의 정확성, 해석의 적절성, 연주의 정확성, 초견 등을 3점에서 7점 척도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아동의 음악적 특이사항들에 대한 진술을 첨부하여 평정지로 점수화할 수 없었던 음악 적성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1단계에서 사용한 SRBCSS-R(Renzulli et al., 2002)의 음악 영재성 문항들과 MI적성진로진단검사(서울대도덕심리연구실, 2003)의 음악지능 문항들(예: 비슷하거나 다른 음 찾기, 연주하기, 악보보고 가락 맞추기)을 사용한다. 각각의 문항들은 음정, 셈여림, 음색, 리듬감, 소리 변별력, 기억력, 표현력, 음악활동 참여(이상 SRBCSS-R)와 노래, 연주, 작곡, 멜로디, 박자, 악기 및 악보 인식, 곡 구성, 장르 및 내용 이해력(이상 MI적성진로진단검사) 등을 평가한다.

나) 음악 영재성 - 동기(M)

음악 동기는 음악에 대한 관심, 흥미, 태도에 관한 것으로 열정, 집중력, 지구력, 자신감, 취미, 여가, 교외활동, 진로 계획, 가정환경 등이 동기 요소들로 포함된다. 아동대상 설문지와 인터뷰, 부모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동이 좋아하는 음악과 이유,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배우고 싶은 악기와 이유, 연습 빈도, 음악회 참여, 좋아하는 음악인과 영향력, 음악관련 취미, 여가, 교외 활동, 진로, 부모와 가정의 재정적, 심리적 지원 등을 평가한다. 특히 부모 인터뷰의 경우, 아동의 음악 동기 형성과 발달, 음악활동에 대한 지원, 음악 진로 지도에 대한 부모와 가정의 역할과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도록 한다.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생들임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가급적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설문 조사로 얻기 힘든 민감하고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인터뷰는 설문 조사 이후에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20분 내외, 아동 및 부모 인터뷰는 20~30분 정도 소요된다.

다) 음악 영재성 - 창의성(C)

음악 영재성의 세 번째 요소인 창의성은 독창적 표현력, 상상력, 음악적 개성(독특성) 등을 포함한다(이미경, 2009). 평가 도구로 Measure of Creative Thinking in Music (MCTM: Webster, 1989)을 사용하는데 아동과 1:1로 마주 앉아 그림이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즉흥적으로 소리 내어 반응하게 함으로써 문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여러 도구들(예: 종, 피아노, 마이크)이 자극으로 사용되는 점이 특이하며 아동의 반응은 녹음되어 전문가들에 의해 음정이나 박자를 자유롭게 다루는 유연성, 연주의 독창성, 창의적 이해 및 해석력 등을 평가받는다(이미경, 2009).

음악 창의성 평가의 또 다른 방법으로 아동의 즉흥 연주(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연(오디션)이 있다. 전문가들은 리듬, 선율, 주제에 맞는 즉흥곡 만들기, 그림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후 소리와 도구(악기)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와 같은 능력들로 아동의 음악적 창의성을 평가한다. 전문가들이 시연 중에 관찰, 기록한 아동의 창의적 특성들은 평정 점수와 함께 판별 과정에 참고, 반영할 수 있다.

라) 시각예술 영재성 - 기술(S)

시각예술 기술은 주제에 대한 이해, 시·지각 능력, 작품 분석력, 형태 표현력, 색채 구성력 등의 인지, 지각, 표현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첫 번째 기술 평가는 시각예술 기술의 대표적인 검사로 평면드로잉을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하는 Drawing Ability Test (CDAT: Clark & Wilson, 1991)로 수행한다. 아동은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집,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공상 세계에서 좋아하는 것 등의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15분 동안 그림으로 반응하고, 평가는 감각적(예: 선, 형태, 질감), 형식적(예: 리듬, 균형, 통합, 구성), 표현적(예: 무드, 독창성), 기술적(예: 기술, 해법의 정확성) 속성들에 대한 5점 척도 (5=탁월함, 1=부족함)로 수행한다. CDAT는 시각예술 영재성 검사도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10세 이상의 학생들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이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문항별 상황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아동의 시각예술 잠재성과 재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화보, 자료, 스케치북, (창)작품, 미술대회 수상 경력이나 관련 문서들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문가 평정이다. 아동은 제출할 포트폴리오에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해석, 특징, 창작 동기, 작품 감상에서 중요한 요인들과 개인적인 감회 등을 함께 기술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작품에 반영된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중요한 준거로는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다양성, 작품의 질적 수준, 독창성, 구성, 정교함, 기교 등의 기술, 적성, 능력; 작품에 대한 이해, 비평 및 분석력 등이다(이미경, 2007).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점수를 산정하고 개인적인 소견을 첨부함으로써 점수에 반영하지 못한 특이 사항들을 판별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기술 평가는 시연으로 이미경(2007)이 제안한 단계별 시연 절차를 따른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인물을 그리게 하고, 미리 준비한 재료(예: 종이, 점토, 연

필, 가위)로 작품을 만들게 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네 단계, 총 2시간(단계별 30분)에 걸쳐 이를 관찰하게 하고 시각예술에 대한 열의, 집중력, 선의 무게와 유동성에 대한 이해, 기호화 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게 한다. 두 번째 단계 과제는 정물 그리기로 비례와 비율 감각, 밝기, 덩어리, 부피감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작품 제작, 재료 사용, 균형, 집중력, 움직임 등을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2차원, 3차원적으로 창작한 작품에 대한 시간과 재료 사용의 계획성, 색상과 대비,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창작한 작품에 대한 에세이 쓰기와 토론을 통해서 재료, 구도, 이미지, 아이디어 구성,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의도를 설명하게 한다.

이밖에도 1단계에서 수합한 교사 평정 SRBCSS-R(Renzulli et al., 2002)의 예술 영역 문항들과 MI적성진로진단검사(서울대도덕심리연구소, 2003) 공간지능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참고한다. SRBCSS-R 예술 문항들의 경우, 시각예술 문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작품의 주제와 내용의 다양성,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하기, 미술 활동에 대한 집중도, 재료와 기법의 다양성, 관찰력, 작품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각예술 기술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MI적성진로진단검사 공간지능 문항들로는 원근, 방향, 길이와 같은 공간요소 인식력, 평면에서의 공간특성 표현력, 입체감 있게 구성하는 능력들을 평가하며 문항은 그림(예: 2, 3차원 도형, 평면도, 대칭, 유사성)과 언어로 제시된다.

마) 시각예술 영재성 - 동기(M)

시각예술 동기는 시각예술에 대한 흥미, 열정, 관심, 과제 집착력, 인내심, 시각예술 활동, 취미, 여가, 진로 계획 등과 같은 아동의 습관, 태도, 취미, 예술 활동과 부모와 가정의 관심과 지원 관련 문항들로 평가한다. 음악 동기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 설문 조사와 인터뷰, 부모 인터뷰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와 이유,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 인물과 이유, 미술관에 가는 빈도, 좋아하는 미술가와 이유, 그림 그리는 빈도, 미술 작품 몰입도, 장래 희망, 미술 관련 방과 후 활동, 미술 활동에 대한 부모와 가정의 지원 등을 물어본다. 단답형과 선택형 문항들로 구성된 아동 설문 조사는 20분, 아동 및 부모 인터뷰는 각각 20~30분 소요된다. 인터뷰를 통해서 아동은 설문 응답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고, 부모는 아동의 시각예술 동기 형성 과정과 발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바) 시각예술 영재성 - 창의성(C)

시각예술 창의성 평가는 일반 창의성 검사와 작품에 대한 전문가 평정으로 수행한다. CDAT와 TTCT의 축약 버전인 TTC(Torrance Tests of Creativity)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음을 고려하여(Clark & Zimmerman, 2001), TTCT 그림검사를 1단계 일반예술 창의성 평가에서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창의성 평가 도구로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 창의성 평가가 A형이나 B형 중 한 가지를 무작위로 선택, 사용하는 데 반해 시각예술 창의성은 선보다 도형으로 이루어진 B형이 보다 적합할 수 있음(이미경, 2008)을 고려하여 시각에

술 창의성 평가는 TTCT B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방법은 아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창의성 평가이다. 포트폴리오(예: 화보, 스케치북, 창작물, 수상 경력)를 통해서 창의성의 핵심 요소인 독창성과 기능성(적합성)을 평가하고, Renzulli와 Reis(1997)가 개발한 창작물 평가양식(Student Product Assessment Form)에 기반하여 (1)주제의 독창성, (2)작품에 포함된 재료의 기술성과 복잡성(고차원성), (3)주제와 재료의 조합, (4)작품의 사회적 공헌도를 평가 준거로 삼는다. 평정은 5점 척도(5=매우 뛰어남, 1=낮음)로 네 가지 요소별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 외 특이 사항에 대한 전문가 기술을 함께 포함하도록 한다.

사) 발레 영재성 - 기술(S)

발레 영재성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기술적 특성은 움직임, 분석력, 기억력, 신체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판별 방법으로 시연(오디션)을 통한 전문가 평정이 대표적인데 아동에게 가상 주제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느낌과 생각을 발레 동작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신체 조정력과 협응력을 평가한다. 신체 조정력의 경우, 유연성, 순발력, 근력, 지구력이 주된 평가 요인이며 신체 협응력은 균형, 회전력, 리듬감 등이 중요하다. 동작 분석력과 기억력은 각각 공간 지각력, 시간 인식력, 움직임 요소 파악력과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이미경, 2007).

두 번째 평가 도구는 MI적성진로진단검사(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 2003) 신체운동지능 문항들과 SRBCSS-R(Renzulli et al., 2002)의 연구 영역 문항들이다. 이들 모두 1단계에서 사용된 것으로 수합된 자료를 발레 기술 평가에 포함하도록 한다. 신체운동지능은 운동, 신체 작업, 신체예술의 세 가지 영역에서 힘, 리듬, 속도 등에 필요한 요소 인식력, 손의 기능과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신체동작 상자에 대한 인식력 등을 측정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용은 문항에 그림을 포함하지만 고학년용은 선택형 문항들과 3점(3점=그렇다, 1=아니다) 또는 5점(5점=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척도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림보고 동작 만들기, 동작 습득 능력, 운동 경험, 외로움에 대한 표현력, 동작으로 이야기 만들기 등이 문항의 예이다. SRBCSS-R(Renzulli et al., 2002)의 연구 영역 문항들은 몸 동작이나 얼굴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 동작의 적절성과 수월성,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동작 만들어내기, 역할극이나 즉흥극을 통한 연기, 타인의 행동 따라하기 등을 포함한다. 점수는 6점 척도(6점=항상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 근거한 평균값과 연령(학년) 대비 백분위수로 산출한다.

아) 발레 영재성 - 동기(M)

발레 동기는 발레에 대한 관심, 열정, 의욕, 집요함, 인내, 성실성, 절제력, 지구력 등으로 평가한다. 발레는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집단으로 작품을 만들어 수행하기 때문에 동료에 대한 배려, 협동, 사회성, 책임감, 리더십과 새로운 동작을 끊임없이 시도해보는 도전 의식 등의 정의적 특성들도 동기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로 발레를 시작하게 된 동기, 성취 의지, 노력, 애정, 끈

기, 집요함, 적합한 신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력, 공연 관람, 좋아하는 발레리나, 방과 후 취미, 과외 활동, 부모의 관심과 지원, 진로 계획 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타인과의 조화, 배려, 협동, 리더십 문항들로 집단 예술에서 요구하는 정의적 특성들을 평가한다. 부모 인터뷰의 경우, 발레에 대한 관심, 애정, 지원, 아동의 발레 시작 동기, 진로 지도, 기대감 등을 탐색한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는 각각 20~30여분 소요된다.

발레처럼 생각, 느낌,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예술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 감정, 정의적 특성과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MI적성진로진단검사(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 2003) 영역들 중 가장 개인적인 영역인 자기성찰지능(개인내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문항들을 사용하여 정서, 감정 및 능력 인식, 일상에 대한 성찰,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질타에 대한 대응 방식, 장·단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인식, 느낌이나 생각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선호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연구 대상이 초등학생들임을 감안하여 자기성찰지능 문항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할 때 문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고려해본다.

자) 발레 영재성 - 창의성(C)

발레 창의성은 시연(오디션)을 통한 즉흥적인 창작 능력, 표현력, 동작의 독창성과 적절함 등으로 평가한다. 발레 기술 평가에서처럼 아동은 가상적 주제나 이야기를 듣고 생각과 느낌을 발레 동작으로 표현하고, 제시된 자극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즉흥적인 동작으로 만들어낸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표현한 동작에 대한 감정 표현력, 리듬감, 즉흥성과 같은 감성적 요소들과 표현의 적극성과 유희성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이미경, 2007)을 고려하여 동작의 적절성, 기능성, 독창성, 새로움 등을 평가한다. 점수는 전문가 평점과 시연 중에 전문가들에 의해 관찰, 기록된 소견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다. 3단계 - 종합 평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 마지막 단계인 종합 평가에서는 이전 1, 2단계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와 평가 결과들을 총괄적으로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에서 다섯 명씩 총 15명의 예술영재를 선발한다. 종합 평가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이전 평가 단계에서 수합한 자료들 중 포트폴리오, 시연, 인터뷰와 같은 정성(qualitative)자료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판별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역별 평가 자료들에 대한 하위 점수들과 전문가 소견에 대한 활용 여부와 범위, 평가 도구의 특성과 단계를 고려한 평가 지표에 대한 가중치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종합 평가 단계에서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MC모형에서 포함한 판별 도구들 중 단계별로 중복되어 사용되는 검사 도구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SRBCSS-R(Renzulli et al., 2002)은 1단계 교사 추천(지명) 영재성 판별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연극(연기) 영역 문항들은 각각 음악, 시각예술, 발레 기술 평가 도구로 사용된다. 총체적, 영역 일반적 예술 창의성 평가 도구로 사용된 TTCT(Torrance et al., 1998)는 시각예술 창의성, MI적성진로진단검사(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 2003)는 총체적, 영역 일반적 기술 평가 도구인 동시에 음악, 시각예술, 발레 기술 평가와 발레 동기 평가 도구로도 사용된다. 이들 검사들은 영역별로 하위 점수를 산출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MC모형의 세부적, 영역 특수적 예술 영재성 판별 도구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별 전문가들 간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어 사용되는 문항과 평가 도구들, 이들에 대한 점수 산출 과정에서의 가중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의 교과목 성적 반영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한다. Clark & Zimmerman(2001)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선발 과정에서 예술 교과목뿐만 아니라 언어, 수학, 읽기 과목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판별 준거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 시각예술적성 간 유의한 상관에 기반한 것이었다. SMC모형 1, 2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음악, 미술, 체육 교과목에 대한 가장 최근 1, 2학기 성적과 언어, 수학, 읽기 등의 기초 학업 성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와 예술 자극과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의 교과목 성적 고려 범위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취미, 여가, 교외 활동 및 수상 경력을 판별 과정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종합 평가 단계에서의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이다. 포트폴리오, 시연, 설문지,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아동의 예술 활동과 경험들은 예술 잠재성 평가에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가정적, 교육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 활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이 예술 학원이나 교외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사실을 감안하여 대회 수상 경력보다 취미, 여가, 교내외 특별 활동(예: 종교단체 포함)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과 같은 개인 특수적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들에서 산출된 원점수, 가중치를 고려한 변환점수, 백분위수, 평가 과정 중에 기록한 전문가 소견, 아동의 진술(설명)들을 점수화시키고 이들 각각을 판별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 전문가 소견(기술)은 아동의 예술적 잠재성 평가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평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판별 과정의 투명성과 합당성을 높이고, 자료 특히 정성 자료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SMC 모형에 대한 단계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요약은 <표 1> 참조).

IV. 논 의

1. 요약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SMC모형은 세 단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자녀들 중 음악, 시각예술, 발레의 한 가지 영역에서 예술적 잠재성을 보이는 아동을 판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 모형이다. SMC모형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의 첫 번째 단계는 문서 리뷰와 교사 추천 단계로 아동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와 예술 영재성 평가가 주된 과제로 교사 평정 및 추천 척도, 설문지 등이 사용된다. 두 번째 예술 영재성 평가 단계에서는 (1)총체적, 영역 일반적 예술과 (2)세부적, 영역 특수적 예술(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에서 SMC모형의 구성 요소인 기술, 동기, 창의성을 다양한 양적, 질적 검사 도구를 통해서 영역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마지막 종합 평가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들에서 수합한 평가 자료 및 산출 지표들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예술영재 판별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에서 다섯 명씩 총 15명의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들을 최종 선발한다.

SMC모형에 포함된 검사 도구들은 경험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당 수준 검증되어 예술 영재성 판별에 이미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도록 제안된 도구들로 본 연구에서는 SMC모형의 기술, 동기, 창의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검사 도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SRBCSS-R, GRS처럼 일반 영재 판별 도구를 예술 영재성 판별 도구로 사용한 것,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MI적성진로진단검사를 주요 검사 도구에 포함한 것은 예술 영역별 특성과 영재성 판별의 특이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안이었다. KMAT, MCTM, CDAT와 같은 양적 표준화 검사 도구와 시연, 포트폴리오, 아동 및 전문가 진술과 같은 질적 평가 자료들을 판별 과정에 모두 포함한 것은 개별 도구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려 한 SMC모형의 또 다른 강점이다.

그러나 SMC모형은 다음의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판별 과정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의 수가 음악, 시각예술, 발레 영역별로 균등하지 않고 단계별로도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는 이론적,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과학적 검사 도구들을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검사 도구들 자체가 SMC모형과 범주(총체적, 영역 일반 vs. 세부적, 영역 특수적 예술)에 완전히 부합되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별, 단계별로 완전히 차별화된 검사들을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술 영재성 판별에 사용되는 검사 도구가 많지 않은 점도 또 하나의 제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 평가 단계에서 영역별 특성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검사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들간의 조율과 협의를 제안한다.

둘째, 광범위한 평가 요소들을 고려한 SMC모형과는 달리 기본적인 예술 행위(예: 시창, 노래, 악기 연주)만으로 예술적 잠재성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한국 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예술 영재성이 하위 요소들 모두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성들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영역별로 반드시 필요한 소수 능력들에 대해서 집중적, 지속적, 장기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가 제기된 만큼 효과적인 예술 영재성 판별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예술 영재성 평가에서 시연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 시연 평가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가령, 음악 기술 평가에서의 화성감과 기억력, 동기 평가에서의

지구력, 창의성 평가에서의 태도나 표현력 등은 한두 차례의 시연을 통해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미경, 2007, 2009). 시연할 때 아동에게 주어지는 시간 또한 너무 짧아 전문가들이 아동의 잠재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평정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관찰 평가(이미경, 2007)처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성들을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발레와 같은 집단 예술은 타인에 대한 배려, 조화, 협동, 리더십 등의 특성들도 평가해야 하므로 수업 관찰 평가는 일회성 시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중요한 평가 단서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넷째, 기술 평가는 기존 검사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판별 도구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당히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동기와 창의성은 GRS와 TTCT 외에 정성 자료들이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었다. 정성 자료들은 정량 자료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세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평가 자료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동기와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을 평가하는 경우 반응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 주관성이 커질 수 있다. 아동이 수줍음이 많아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노래, 연주, 그림, 동작을 통한 의사표현에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 언어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아동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예술적 잠재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MC모형에서는 영역 별 전문가 집단의 구성과 방법, 시연 빈도, 시기 및 장소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예술 영역 별 특수성을 인정하고, 판별대상과 목적, 현실적인 평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술영재 판별을 제안하는 SMC모형의 강점이자 또 하나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태진미(2009)는 음악영재선발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참여와 권한 확대를 제안하였다. 예술 영재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판별을 위해서 교육 및 예술 전문가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SMC모형 활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예술 영재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소외되어 온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 영재들을 판별하기 위한 모형 개발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의 예술적 잠재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의 현재 수행능력보다 개발될 잠재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각적, 다단계적으로 영재성을 판별할 때 예술적 활동과 경험에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 시절 예술적 경험이 영재들의 창의성(예: 유창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성 교육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태진미, 2010), SMC모형은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들의 창의·인성교육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선발 모형으로 활용가능

하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들이 일반 예술영재들과 다른 예술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으로 예술영재 선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예술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SMC모형은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예술 영재성을 판별하는 모형으로도 제고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와 일반 예술영재들의 개인적, 교육적, 물리적, 환경적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 도구들(예: 선별, 가중치, 평정자)을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SMC모형 개발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모형의 타당성과 과학성을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SMC모형이 예술영재 판별과 선발, 한국형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유용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 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증과 함께 경험적, 실증적 검증이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http://www.mest.go.kr/web/1111/ko/board/view.do?bbsId=150&boardSeq=14710> (검색일: 2010. 12. 20).
- 김말복 (2003). **무용예술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문용린 (2004). **지력혁명**. 서울: 비즈니스북스.
- 서울대 도덕심리연구소 (2003). **MI적성진로진단검사**. 서울: 대교.
- 이미경 (2007).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I)**.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경 (2008). **시각예술영재의 잠재성에 근거한 선발 방법 연구-초등5~6학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경 (2009). **음악영재교육을 위한 선발지침서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예술영재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탐색: 음악, 미술, 무용 영재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2), 547-570.
- 태진미 (2009). 국내 음악영재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탐색. **영재교육연구**, 19(3), 729-758.
- 태진미 (2010). 영재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예술 활동의 가능성 탐색: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0(3), 789-807.
- 현경실 (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9).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 <http://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 (검색일: 2010. 12. 21).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1). **예술 영재의 특성**. <http://www.kiga.or.kr/education/edu03.jsp> (검색일: 2011. 1. 13).
- Arts Connection (1992). *Talent beyond words: Identifying and developing talent*. Brooklyn, NY: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Jacob Javits Gifted and Talented Program.
- Baum, S. M., Owen, S. V., & Oreck, B. A. (1996). Talent beyond words: Identification of potential talent in dance and music in elementary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0, 93-101.
- Bloom, B. S. (Ed.).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Y: Ballantine Books.
- Clark, G. A., & Wilson, T. (1991). Screening and identifying gifted/talented students in the visual arts with Clark's Drawing Ability Test. *Roeper Review*, 13, 92-97.
- Clark, G. A., & Zimmerman, E. (2001). Identifying artistically talented students in four rural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Gifted Child Quarterly*, 45, 104-114.
- Cramond, B., & Kim, K. H. (2008). The role of creativity tools and measures in assessing potential and growth In J. Van Tassel-Baska (Ed.), *Alternative assessments with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pp. 203-225). Waco, TX: Prufrock Press.
- Davis, G. A., & Rimm, S. B. (1998).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Ford, D. Y., Harris III, J. J., Tyson, C. A., & Trotman, M. F. (2002). Beyond deficit thinking: Providing access for gifted African American students. *Roeper Review*, 24, 52-58.
- Frasier, M. M., & Passow, A. H. (1994). *Toward a new paradigm for identifying talent potential*. Storrs,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Y: Basic Books.
- Haroutounian, J. (2002). *Kindling the spark-recognizing and developing musical tal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outounian, J. (2008). Musical talent. In J. A. Plucker & C. M. Callahan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s* (pp. 449-467). Waco, TX: Prufrock Press.
- Harrison, C. (2005). *Young gifted children: Their search for complexity and connection*. Canberra: Early Childhood Australia.
- Hurwitz, A. (1983). *The gifted and talented in art: A guide to program planning*. Worcester, MA: Davis.
- Kaufman, S. B., & Sternberg, R. J. (2008). Conception of giftedness. In S. I. Pfeiffer (Ed.), *Handbook of giftedness in children* (pp. 71-91). NY: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Lee, S.-Y., Matthews, M. S., & Olszewski-Kubilius, P. (2008). A national picture of talent search and talent search educational program. *Gifted Child Quarterly*, 52(1), 55-69.
- Marland, S. P. J.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U. S. Commissioner of Education (Vol. 1). Washington, DC: U.

-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Miller, R., & Gentry, M. (2010). Developing talents among high-potential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in an out-of-school enrichment program.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21*, 594-627.
- Naglieri, J. A. (1997). *Naglieri Nonverbal Ability Test*. San Antonio, TX: PsychCorp.
- Ohnishi, T., Matsuda, H., Asada, T., Aruga, M., Hirakata, M., Nishikawa, M., et al. (2001). Functional anatomy of musical perception in musicians. *Cerebral Cortex, 11*, 754-760.
- Oreck, B., Baum, S., & McCartney, H. (2000). *Artistic talent development for urban youth: The promise and the challenge*. Storrs, CT: National Research Center on Giftedness and Talent, University of Connecticut.
- Oreck, B. A., Owen, S. V., & Baum, S. M. (2003). Validity, reliability, and equity issues in an observational talent assessment process in the performing ar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7*(1), 62-94.
- Persson, R. S. (2009). The elusive muse: Understanding musical giftedness. In L. V. Shavinina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pp. 727-750). Dordrecht, NL: Springer Science.
- Pfeiffer, S. I., & Jarosewich, T. (2003). *Gifted Rating Scales*. San Antonio, TX: Psych Corp.
- Piirto, J. (2008). Giftedness in nonacademic domains. In S. I. Pfeiffer (Ed.), *Handbook of giftedness in children: Psychoeducational theory, research and best practices* (pp. 367-386). New York: Springer.
- Reis, S. M., & Housand, A. M. (2008). Characteristics of gifted and talented learne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domains. In F. A. Karnes & K. R. Stephens (Eds.), *Achieving excellence: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 (pp. 62-81).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Renzulli, J. S., & Reis, S. M. (1997).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 to guide for educational excellence* (2nd ed.).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enzulli, J. S., Smith, L. H., White, A. J., Callahan, C. M., Hartman, R. K., Westberg, K. L., et al. (2002). *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 Mansfield,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ogers, K. B. (2006). *A menu for options for grouping gifted students*. Waco, TX: Prufrock.
- Sousa, D. A. (2003). *How the gifted brain learn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Stambaugh, T. (2007). Next steps: An impetus for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for low-income promising learners. In J. Van Tassel-Baska & T. Stambaugh (Eds.), *Overlooked gems: A national perspective on low-income promising learners* (pp. 83-88).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Subotnik, R. F., Edmiston, A. M., Cook, L., & Ross, M. D. (2010). Mentoring for talent

- development, creativity, social skills and insider knowledge: The APA Catalyst Program.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21, 714-739.
- Suzuki, S. (1983). *Nurtured by Love: The classic approach to talent education*. Smithtown, NY: Exposition Press.
- Swanson, J. D. (2006). Breaking through assumptions about low-income, minority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50(1), 11-25.
- Torrance, E. P., Ball, O. E., & Safter, H. T. (1998).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streamlined scoring guide figural A and B*. Bensenville, IL: STS
- Valencia, R. R., & Suzuki, L. A. (2001). *Intelligence testing and minority students*. Thousand Oaks, CA: Sage.
- Van Tassel-Baska, J., Feng, A., Quek, C., & Struck, J. (2004). A study of educator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academic success for underrepresented populations identified for gifted programs. *Psychology Science*, 46(3), 363-378.
- Van Tassel-Baska, J., Patton, J., & Prillaman, D. (1991). *Gifted youth at risk: A report of a national study*.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Webster, P. R. (1989). Creative thinking in music: The assessment question. In J. W. Richmond (Ed.), *Proceedings of the Suncoast Music Education Forum on Creativity* (pp. 40-75). Tampa, FL: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Winner, E. (1996a). The rage to master: The decisive case for talent in the visual arts. In K. A. Ericsson (Ed.), *The road to excellence: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in the arts and science, sports and games* (pp. 271-301). Hillsdale, NJ: Erlbaum
- Winner, E. (1996b).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NY: Basic Books.
- Winner, E. (2004). Art history can trade insights with the science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July 2, B10-12.
- Winner, E., & Martino, G. (1993). Giftedness in non-academic domains: The case of the visual arts and music. In K. Heller, F.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2nd ed., pp. 95-110). Oxford: Elsevier.
- Worley II, B. B. (2008). Visual and performing arts. In J. A. Plucker & C. M. Callahan (Eds.), *Critical issues and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What the research says* (pp. 735-747). Waco, TX: Prufrock Press.
- Wyner, J. S., Bridgeland, J. M., & Diiulio Jr., J. J. (2007). *Achievement trap: How America is failing millions of high-achieving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Washington, DC: Jack Kent Cooke Foundation Civic Enterprises.
- Zimmerman, E. (1997). I don't want to sit in the corner cutting out valentines: Leadership roles for teachers of talented art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1, 33-41.

= Abstract =

The SMC Model: Identification of Artistically Gifted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Seon-Young Le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study is about the development of an identification model for artistically gifted students from low income and/or multi-cultural families. Given that parental support at early ages is crucial for talent development,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are often dismissed in recognizing their artistic giftedness.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in art, the SMC model was developed to identify disadvantaged gifted students in the areas of music, visual arts, and ballet. The model consists of three steps of identification, such as review of documents and teacher recommendations, evaluations of artistic giftedness, and a summative evaluation, and involves multiple criteria for identifying giftedness in both domain general and domain specific arts. SMC is promising in discovering many unrecognized disadvantaged children of artistic potential, thereby using variou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s. Yet, issue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MC need to be substantiated by subsequ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Key Words: Artistic giftedness, Artistically gifted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Identification of the artistically gifted

1차 원고접수: 2012년 2월 9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3월 27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3월 28일

< 표 1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판별모형 - SMC 모형

특성 단계	개념	영역	세부영역	평가도구 (문서)	방법	대상	평가요소	평가 지표					
사회적 배려 대상	경계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대상 관련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문서제출	이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적합여부					
									차상위계층	문서제출	이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적합여부
									(1) 의료급여법 보호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가정 (3) 장애수당가정				
1단계 문서 리뷰 교사추천	비경계 조건	예술영재 특성들	다문화가족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문서제출	이동	다문화가정여부	다문화가정여부	적합여부					
									예술영재 특성들	교사실문지	예술성 행동 특성 및 영역 추천	교사인술 평가	예술성 행동 특성 및 영역 추천
예술 영재성	영재성	예술영재 특성들	예측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양적 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예측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예측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양적 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양적 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양적 평가-예술영재성 교사	이동	영재성 행동 특성 및 영역 추천	영재성 행동 특성 및 영역 추천	영재성 행동 특성 5가지 영역별 하위점수 문항 점수 평균 교사인술 문항 점수 평균 교사인술					

< 표 1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판별모형 - SMC 모형

일반 예술	기술 (Skill)	(1) MI적성진로진단검사	양적 평가- 다중지능	아동	8가지 지능 중 음악, 공간, 신체운동지능	지능별 하위점수 표준화점수, 백분위수
		(2) NNAT	양적 평가- 공간지각 능력	아동	논리, 추리 및 문제해결력	비언어인지능력지수 표준화점수, 백분위수
		(3) GRS	양적 평가- 예술영재성	교사	6가지 영재성 영역들 중 예술재능 영역	예술재능 점수 표준화점수, 백분위수
2단계 예술영재성 평가	총체적, 영역 일반적 예술	(1) GRS	양적 평가- 예술동기	교사	6가지 영재성 영역들 중 동기 영역	동기 점수 표준화점수, 백분위수
		(2) 아동설문지(I)	양적, 질적 평가- 예술동기	아동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취미, 참여활동(프로젝트), 수상 경력, 예술 과제 해결능력, 가상 상황에서의 반응	모형 점수 평균 아동 진술 (설명)
		(3) 아동 설문지 (II)	양적 평가- 예술활동	아동	예술활동 참여 및 재능개발에 대한 관심, 열정, 의지, 끈기, 노력, 도전감	모형 점수 평균
일반 예술	창의성 (Creativity)	(1) TTCT (그림)	양적 평가- 창의성	아동	유연성, 독창성, 정교화, 제목의 추상성, 미완성적 단합에 대한 저항성 (5개 요소), 13개의 창의성 특성	창의성 지수 (평균표준화+모닉스)
		(2) GRS	양적 평가- 창의성	교사 아동	영재성의 6가지 영역들 중 창의성 영역	창의성 점수 표준화점수, 백분위수

< 표 1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발모형 - SMC 모형

음악	기술 (Skill)	(1) KMAT	양적 평가- 음악 기술 적성 이동	리듬 패턴과 가락 패턴의 유사성, 차이점 인지 능력	리듬 점수 가락 점수
		(2) 시연 (오디션)	질적 평가-음악 수행 전문가 관찰, 평가 이동	음감, 음에 대한 민감성, 리듬감, 화성감, 기억력, 노래, 악기 연주하기, 강박 등	전문가평점 전문가 진술(소견)
		(3) SRBCSS-R	양적 평가-음악영재성 교사	음악영재성 행동특성	음악 행동특성 점수
		(4) MI적성진로진단검사	양적 평가-다중지능 이동	음악지능	음악지능점수 표준화 점수, 백분위수
음악 동기 (Motivation)	음악	(1) 아동실문지	양적 평가- 음악동기 이동	음악에 대한 태도, 열정, 시각 동기, 진로, 집중력, 지구력, 자신감, 취미, 여가,	문학 점수 평균
		(2) 아동인터뷰	질적 평가- 음악동기 이동	교외활동, 음악회, 기타 음악 활동 참여, 부모 및 가정의 관심과 지원 등	인터뷰 내용
		(3) 부모인터뷰	질적 평가- 음악동기 부모	부모 및 가정의 관심과 지원, 자녀의 진로 계획 등	인터뷰 내용
2단계 예술 영재성 평가	창의성 (Creativity)	(1) MCTM	양적 평가-창의적 반응, 표현력, 즉흥성 이동	음악적 지속성, 유연성, 독창성, 논리성, 즉흥성, 표현력	후위 영역별 점수
		(2) 시연 (오디션)	질적 평가-전문가 관찰, 평가 이동	생각과 감정을 새롭고 독창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즉흥 연주력	전문가평점 전문가 진술(소견)
시각 예술	기술 (Skill)	(1) CDAT	양적 평가-평면 드로잉 관련 기술 이동	감각적, 형식적, 표현적, 기술적 숙성 등 4가지 시각예술 기술, 적성, 능력	후위 영역별 점수
		(2) 포트폴리오	질적 평가- 스케치북, 수상, 회보(문서), 창작물, 기타 작품들에 대한 전문가 평정 이동	재문의 다양성, 작품의 질적 수준, 독창성, 창의성, 구성력, 복잡성, 정교성, 기교, 비평 분석력과 같은 시각예술 기술, 적성, 능력	전문가평점 전문가 진술(소견) 아동 진술(설명)
		(3) 시연(오디션)	질적 평가-단계별 오디션을 통한 시각 예술 영재성 전문가 관찰 평가 이동	동기, 집중력, 선, 유희성, 비례, 밝기, 덩어리, 부피감, 재료, 균형, 집중, 움직임, 계획성, 색상, 대비, 아이디어, 디자언, 이미지 등	전문가평점 아동 진술(설명)
		(4) SRBCSS-R	양적 평가 - 시각 예술 영재성 교사	예술영재성 행동특성	예술행동특성점수
		(5) MI적성진로진단검사	양적 평가 - 다중지능 이동	공간지능점수 표준화 점수, 백분위 점수	

< 표 1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판별모형 - SMC 모형

시각 예술	(1) 아동설문지	양적 평가: 시각예술 동기	아동	시간예술에 대한 관심, 열정, 시각동기, 집중력, 지구력, 자신감, 취미, 여가, 진로	문학 점수 평균
	동기 (Motivation)	질적 평가: 시각예술 동기	아동	교외활동, 진시회, 기타 미술 활동 참여, 부모 및 가정의 관심과 지원 등	인터뷰 내용
		질적 평가: 시각예술 동기	부모	부모 및 가정의 관심과 지원, 자녀의 진로 계획 등	인터뷰 내용
시각 예술	(1) TTCT (그림)	양적평가: 창의적 잠재성, 즉흥성, 창의성	아동	유연성, 독창성, 정교화, 제목의 추상성, 미완성 단함에 대한 저항성, 창의적 특성	점수화 - 창의성 지수(평균표준화+모더스)
	창의성 (Creativity)	질적 평가: 스케치북, 수상, 화보(문서), 창작물, 기타작품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	아동	새로운, 독창성, 기능성, 적절성, 복잡성, 사회적 공헌도 등	전문가평점, 전문가 진술(소견)
					아동 진술 (설명)
2단계 예술 영재성 평가	(1) 시연(오디션)	질적 평가:발레수행 전문가 관찰, 평가	아동	신체조각력, 신체협응력, 동작분석력, 동작각역력	전문가평점
	기술 (Skill)	양적 평가:다중지능	아동	신체운동지능점수	전문가 진술(소견)
		양적 평가: 행위예술영재성	교사	연극영재성행동특성	표준화 점수, 백분위수
발레	(1) 아동설문지	양적평가:발레동기	아동	발레에 대한 애정, 의욕, 열정, 집요함, 인내, 성실성, 절제성, 지구력, 배려심	문학 점수 평균
	동기 (Motivation)	질적 평가:발레동기	아동	협동심, 책임감, 리더십, 도전의식, 무용공연, 기타 무용 활동 참여, 진로, 부모 및 가정의 관심과 지원 등	인터뷰 내용
		질적 평가:발레동기	부모	부모 및 가정의 관심과 지원, 자녀의 진로 계획 등	인터뷰 내용
		양적 평가:다중지능	아동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점수
발레	(1) 시연(오디션)	질적 평가:즉흥 공연 전문가 관찰, 평가	아동	생각과 감정을 새롭고, 독창적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즉흥 연주력	전문가평점
	창의성 (Creativity)				전문가 진술(소견)

< 표 1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판별모형 - SMC 모형

3단계 종합평가 영재성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성	음악	기술, 동기, 창의성(SMC)	(1) 1단계-2단계과정에서 제출한 문서와 사용한 평가도구들 모두를 고려 양적, 질적 평가도구 자료수합	아동, 교사, 부모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 중 음악, 시각예술, 발레의 3가지 영역에서의 예술적 영재성/잠재성	문서 적합성 점수(영역, 설문지)백분위 아동진술(설명) 전문가 평점 전문가 진술(소견) 아동, 부모 인터뷰
	종합평가	시각 예술	음악, 미술, 체육, 무용, 과목 최근 1, 2학기 성적표	양적평가-음악, 시각예술, 발레 관련 교과목 최근 성적	아동	음악, 시각예술, 발레 교과목 학업성취도 및 동기 수준 음악, 시각예술, 발레 활동경험 정도	전문가평점 전문가 진술(소견)
	영재성	발레	(2) 음악, 미술, 체육, 무용, 과목 최근 1, 2학기 성적표	양적, 질적 평가-전문가 논의, 협의, 의사결정	(3) (1)번과 (2)번에 대한 가중치	사용된 평가 도구들 (양적, 질적 평가도구 및 예술적 취미, 활동, 경험, 수상 등)의 고려도, 중요도, 중복성, 현실성, 신뢰성, 객관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로서의 가중치 결정, 적용	점수 전문가 진술(소견)